

게리 예이츠 박사, 성서 12서, 8회, 아모스, 열국에 대한 심판

© 2024 게리 예이츠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소선지서에 관한 강의 시리즈의 Dr. Gary Yates입니다. 이번 세션은 8회, 열방에 대한 심판입니다.

아모스 1장과 2장. 지금까지 아모스서를 연구하면서 우리는 이 책의 주요 주제와 신학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이 강의를 시작하여 책을 통해 좀 더 체계적으로 작업해 나가고 싶습니다. 선지자들의 주요 공헌 중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견해를 도전하고 확대하며 확장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특히 단순히 사랑과 용납과 용서이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우리 문화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다른 면, 즉 하나님의 진노, 거룩함, 진노,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의 양면이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강조되는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단지 구약성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약에서도 그 사실을 상기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레위기에게 지시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 “거룩하라 내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하니라”고 교훈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심을 상기시켜 줍니다. 사도행전의 설교는 과거 무지하던 시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무지함을 간과하셨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예수의 죽음과 그의 아들의 계시에 비추어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보다 더 준엄하시고, 더 진노하시며, 더 의로우신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신약의 하나님이 훨씬 더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진술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 음성을 발하시도다 그는 으르렁거리는 사자이면서 천둥같은 폭풍우이다.

그 말씀과 하나님의 형상은 제가 읽고 싶은 몇 년 전 애니 딜라드(Annie Dillard)의 인용문을 생각나게 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경이로움과 위대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힘을 기꺼이 불러일으키는지 가장 모호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엔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는 걸까요? 교회는 일요일 아침을 죽이기 위해 화학 세트를 가지고 바닥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여성용 밀짚모자, 벨벳 모자를 쓰고 교회에 가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우리는 모두 안전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Usher는 구멍조끼와 신호탄을 발부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채찍질해야 합니다.

잠자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느 날 깨어나 화를 내실 수도 있고, 깨어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곳으로 끌어가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아모스서에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모스는 잠자고 계시는 하나님이 곧 깨어날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하나님은 실제로 천둥같은 폭풍 속에서 우는 사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모스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작업하기 시작할 때, 현대 독자들이 선지자서에 대해 겪는 어려움 중 하나와 문제 중 하나는 때때로 이 책들의 순서와 구조, 연대기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한 작가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와 같은 책의 문제점은 현대적 의미의 책으로 읽히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목차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Kindle에서 읽는 책과 같지 않습니다. Kindle에는 깔끔하고 작은 섹션이 있습니다. 그들은 명확한 연대기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가 예언서에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것은 교회에서 30~40년 동안 목회하거나 설교해 온 목사와 그 메시지들의 선집을 편찬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연대순이나 목회자의 사역 기간이나 시기에 따라 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상한 방법으로 엮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선지자들에게서 종종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모스와 함께 우리는 10년간의 사역을 9장으로 구성된 선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오직 루터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선지자들에 관해 이렇게 논평합니다. 그는 선지자들이 말하는 방식이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질서 있게 진행하는 대신에 한 일에서 다음 일로 횡설수설하여 그들이 무엇을 얻고 있는지 머리도 꼬리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리고 제 학생들은 종종 시험에서 예언서를 다룰 때 시험이 끝나면 그 감정을 저에게 다시 반영합니다. 그렇다면 예언서는 어떻게 구성되니까? 어떻게 주문하나요? 우리는 그 합의를 어떻게 인식하니까? 그것은 종종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모스서에 상당히 명확한 구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1장과 2장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덟 개의 다른 나라들을 다루시며 그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봅니다. 그 부분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 즉 먼저 남쪽 왕국인 유다와 북쪽 왕국인 이스라엘로 정점에 이릅니다.

1장과 2장입니다. 3장부터 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확장된 묵상과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상기시켜 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번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심각할 것인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망명이 될 것입니다. 군사적 패배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자의 입에서 찢겨 나온 남은 자들과 같을 것이다. 90%의 사람들은 죽거나 유배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심판의 그림으로 확장됩니다.

그러나 심판이 다가오고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히 5장에는 긍정적인 동기를 가지고 회개하라는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실 일입니다. 심판은 면할 수 있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리실 재앙과 재난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여호와를 구하면 살리라고 말할 것입니다. 선을 구하고 옳은 일을 행하십시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그렇게 한다면, 이 끔찍한 심판을 피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7장부터 9장까지는 일련의 다섯 가지 환상이 있습니다. 종종 하나님께서는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전달하도록 하신 미래나 메시지를 시각적인 방법으로 나타내셨지만, 선지자는 실제로 종종 상징적인 방법으로 묘사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에 나오는 이미지는 선지자가 당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 5개의 시리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국가를 대표하는 성전과 성소를 파괴하는 지진으로 묘사하는 9장의 환상으로 절정에 이릅니다. 나는 이것이 이 책을 마무리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모스 1장 2절이 아모스가 지진이 발생하기 2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사역했다고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보내신 지진은 앞으로 다가올 심판에 대한 경고의 사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환상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폭풍, 지진에 대한 개념으로 취하고 이스라엘을 성소나 무너지는 성전으로 묘사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섯 가지 환상 가운데에는 이야기 부분이 있습니다.

내러티브 부분은 아모스의 부름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스의 메시지에 대해 취한 반응을 다루고 있는데, 아마샤 제사장은 아모스에게 유다로 돌아가서 설교를 중단하고 대적하는 말을 중단하라고 명령합니다. 왕의 성소.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메시지를 거부했다는 사실, 아모스가 말하려는 것에 지도자들이 반대했다는 사실이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모스서 9장 마지막 부분 11절부터 15절은 이 심판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부록이다. 그것은 단지 북왕국의 심판 너머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이 무너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유다도 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심판이 이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안전하게 세워질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다윗 왕조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래 언약을 통해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을 그의 백성에게 부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모스의 구조입니다.

우리는 1장부터 2장, 3장부터 6장, 7장부터 9장을 볼 것입니다. 나는 이 부분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1장부터 2장의 첫 부분인 아모스가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처음 두 장에서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단지 유다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택하신 백성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주권자이시며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나라들을 심판할 권리와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나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유일신 신앙을 명백히 반영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의 다른 신들이 나라들을 다스릴 권세와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궁극적으로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며 모든 민족은 그 앞에 책임이 있느니라.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때때로 뉴저지 주 크기의 작은 주입니다. 그런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모든 나라의 심판자라는 대담한 믿음과 허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토록 강력해 보이는 앓수르의 신들은 열방이 응답하는 신이 아닙니다. 민족들이 여호와께 응답합니다. 그러므로 앓수르의 신들, 애굽의 신들, 바벨론의 신들, 그 신들은 야훼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훼는 궁극적으로 심판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있는 여덟 가지 심판 연설의 배열을 주목하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나는 여기서 선지자가 수사학을 매우 능숙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의사소통과 좋은 말하기의 열쇠는 로고스(logos), 파토스(pathos), 에토스(ethos)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지자들은 확실히 강력한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토라이고 하나님의 계시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들은 메시지의 긴급성 때문에 열정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분명히 비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람들이 자신들이 말하려는 내용을 명확하게 듣도록 하기 위해 로고의 수사법을 사용합니다. 선지자들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 아침에 목사로서 겪는 것과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전에도 이 모든 것을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일요일 아침에 그들이 항상 활기차게 경청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선지자들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부터 심판에 대한 예언적 경고와 회개를 촉구하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말을 듣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 생각에 선지자들은 메시지의 본질적인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인 만큼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에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나는

목회자로서 우리가 수사법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설득의 말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때로 목회자로서 오늘 아침에 전하려는 메시지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내가 아는 다섯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청중석에 앉아 내 말을 듣고 있다면 내가 전달하려는 메시지에 대해 그들이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글쎄, 아모스는 여기서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낯선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가 여기서 말하는 국가의 질서와 배열이 강력한 수사학의 사용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중 한 분은 1장과 2장의 이 구절에서 선지자 아모스가 사람들이 거위가 냄비에 들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요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일을 하는 방식은 아모스가 이스라엘을 둘러싼 나라들의 심판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여섯 번의 심판 연설은 민족 국가나 시리아-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스라엘 민족을 둘러싸고 있는 작은 국가에 관한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전할 말씀은 남왕국 유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어떤 반응과 생각을 했을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가 시온에서 포효하고 예루살렘에서 천둥을 발하여 주위에 있는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은 이 메시지에 진심으로 동의했을 것입니다.

선지자가 아람 사람과 블레셋 사람과 두로 사람과 에돔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의 심판에 대하여 말할 때 그들은 그의 메시지에 박수를 보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여러 면에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 중 다수와의 적대감. 이스라엘과 시리아 사이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고 그들은 땅과 영토를 놓고 앞뒤로 싸웠습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경쟁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주변 나라들의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는 엄청난 승인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에 박수를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일요일에는 헌금 접시가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정점의 메시지로 보일 수 있는 일곱 번째 메시지인 수사학의 매우 전략적인 사용을 계속하면 아모스서 전체에 일곱 개의 주기가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1~24절,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는 일곱 가지 일. 다른 곳에서는 일곱 가지 다른 것들의 목록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메시지는 정점의 메시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남쪽 왕국 유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유다야, 아모스가 자기 백성을 대적하여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정말 좋아해요. 어쩌면 우리가 그를 지켜야 할지도 몰라. 아마도 그는 이주하여 영구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되고 싶어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 메시지에 박수를 보냈을 것입니다. 이 일련의 심판 연설은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여덟 번째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덟 번째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이 천둥과 우레 같은 하나님에 대해 말하여 박수를 보내던 이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들에게 폭탄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설교의 핵심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거나 표적이 될 때 그들이 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 사람들은 우리 주변 문화의 최악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박수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주의, 탐욕, 결혼 생활을 대하는 방식 등 교회의 죄에 눈을 돌릴 때...

전도 부족, 세계 선교에 대한 열정 부족으로 인해 우리의 메시지는 종종 덜 받아들여집니다.

우리가 다른 교단의 배도와 배도에 대해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우리의 메시지에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회중의 갈등과 문제, 깨어진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종종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그분의 심판과 승인을 받지 못하시는 것에 대해 듣고 싶어하지 않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개인별 편지를 받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을 비난하면서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점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그분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와 이스라엘은 면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옥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순서와 진행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 3절에서 선지자가 하려는 일은 단지 다른 민족들의 심판을 이야기하여 이것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효과적으로 포위할 것입니다. 결국 주변 사람들은 모두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 남은 것은 유다와 이스라엘뿐이다.

1장 3절, 다메섹의 세 가지 죄에 대하여. 다마스쿠스는 아람인 시리아의 수도이다. 그곳은 이스라엘의 북동쪽입니다.

1장 6절, 가사의 세 가지 죄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가자,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이다. 그곳은 남서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이동합니다. 1장 9절, 두로의 세 가지 범법. 두로는 페니키아인과 가나안인의 땅 북쪽에 있는 강력한 상업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자지구에 있다가 다시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1장 11절, 남동쪽에 있는 에돔의 세 가지 죄, 에돔 사람들. 1장 13절, 에돔 족속의 동쪽에서 더 북쪽에 있는 암몬 족속의 세 가지 범법.

2장 1절에 보면 모압의 세 가지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일을 겪으면서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에워싸고 있고, 마지막으로 유다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자, 이제 백성들의 죄에 대한 심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와 방법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모세 언약의 규정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십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613가지 처방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자기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다른 나라들을 무엇을 근거로 심판하시는가? 그분은 그들에게 모세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이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모세의 율법으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이 주기의 시작 부분인 다메섹부터 마지막 부분의 이스라엘까지 이 모든 나라들의 죄를 묘사하는 단어는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범법, 즉 히브리어 단어라는 것입니다. 주지사. 그 단어의 기본 개념은 그것이 반역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언약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언약적이라는 생각을 반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세의 언약을 어긴 것과 같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우리는 파샤라는 단어의 특징과 범법, 반역, 언약 위반에 대한 개념을 봅니다. 때로는 구약의 인간 영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5절에 보면 모압 왕 파샤가 이스라엘 왕을 배반했다고 나옵니다. 그는 이때까지 가신이었습니다. 모압 왕은 이에 반역하고 이스라엘로부터 독립을 주장하고 싶어하여 이에 반역합니다.

여기서 구약의 주요 죄 용어 중 하나인 파샤(pasha)라는 단어를 볼 때, 그 개념은 단순히 일반적인 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구체적인 방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보아야 할 질문은 이 언약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이들 국가가 구체적으로 기소된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부분적으로 분명해집니다. 나는 이것이 외국에 대한 수많은 심판 연설을 통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언서의 공통된 특징이다. 이는 선지자들이 여행을 가서 이 외국 나라들에게 메시지를 전파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유일한 선지자는 다른 나라에 가서 그것을 반대하고 설교한 사람입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특이한 일이었고, 그것이 바로 요나가 그것을 저항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언적 메시지를 전파하고,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언서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의 대선지서에는 열방에 대한 일련의 예언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마소라 본문 예레미야서 46장부터 51장까지는 나라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에스겔서 중반부(25-32장)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선지서의 열두 사도서에는 마지막에 이 두 장이 있습니다. 또한 열두 권의 책에는 나훔서와 오바댜서라는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들, 그 책들은 오로지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훔은 니느웨 사람들과 앗수르 사람들의 심판을 말하고, 오바댜는 에돔 사람들의 심판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에는 바벨론에 대한 일련의

재앙의 예언이 나옵니다. 스바냐서 2장에는 아모스서에도 나오는 일부 사람들에 대한 일련의 심판 연설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언적 설교의 일반적인 부분이지만, 그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한 것만큼 열방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특정한 일들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지, 이 백성과 언약을 맺으려는 것이 아니고, 이 백성의 신들이 이스라엘의 주 곧 야훼보다 높다는 것을 믿지 말며, 그들의 압제와 환난 속에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난과 포로 생활, 군사적 패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적들을 처리하시고 그분의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들 국가가 저지르는 구체적인 범죄는 무엇입니까? 아모스서에서 아모스는 이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에게 행한 잔학 행위, 그들이 저지른 폭력, 그리고 종종 그들이 정직하지 못한 사실 때문에 언약을 위반하여 하나님의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들과의 거래에 있어서 조약상의 의무나 그들이 지키겠다고 스스로 다짐한 언약의 약속이나 책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지상의 나라들이 서로에게 저지르는 폭력과 잔학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20세기를 생각하면 전쟁으로 인해 2천만~3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과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 소련의 공산주의 숙청 등의 참상을 생각할 때,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관련이 있습니다. 국가들이 폭력을 행할 때, 전쟁 범죄를 저지를 때 잔학 행위를 할 때, 자기 민족이나 다른 나라에 대해 비인간적인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보시고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1장 3절에는 아람 사람과 시리아 사람과 다메섹성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 기계로 길르앗을 타작하였음이라. 이 모든 연설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이 나라들에 임하는 심판에 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세 가지 죄, 심지어 네 가지 죄에 대한 소개 공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시적인 줄에 3과 4라는 숫자를 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완전하고 완전한 목록에 대한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장치가 잠언에서 사용되는 방식을 볼 때 우리는 종종 다음과 같은 진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여섯 가지, 아니 일곱 가지이며 마지막 숫자는 일반적으로 잠언 다음에 나오는 목록의 숫자입니다. 6:16. 나에게는 너무 놀라운 세 가지가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네 가지 목록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일어난 일은 세 가지 죄에 대하여, 세 가지 죄에 대하여, 심지어 네 가지 죄에 대하여도 그 형벌을 취소하지 아니하리라. 일곱 가지 죄를 갖는 대신, 또는 네 가지 죄의 목록을 갖는 대신 일반적으로 이 목록에는 언급된 죄가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록에 있는 일부 국가에는 두 가지 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그들의 총체적이고 완전한 사악함의 대표적인 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메섹의 죄는 철 타작 기계로 길르앗을 타작한 것입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은 시리아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워서 차지한 땅이었습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어느 시점에서 다메섹의 지도자들과 군대는 길르앗 주민들을 상대로 잔혹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철 타작 기계로 길르앗을 타작했다고 했을 때, 타작 기계는 예리한 칼이나 못처럼 날카로운 말뚝이 박혀 있는 철판이었습니다.

곡물과 곡물을 분리하기 위해 그 날카로운 도구를 밀이나 곡식, 보리 또는 수확 중인 모든 것에 끌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일어난 일은 그들은 이 타작 썰매를 곡식을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을 고문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자적인 것인지 비유적인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메섹과 이스라엘 사이에 일어난 전쟁의 참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으며 다메섹에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1장 6절에서는 가자의 세 가지 범죄와 블레셋

사람들의 네 가지 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나요?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온 백성을 사로잡아 에돔 땅에 넘겨 주려고 하였음이라 하였느니라.

사람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역대하 26장을 보면 웃시야 시대에 유다와 블레셋 사이에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유다 사람들을 사로잡고 전투에서 포로로 삼은 다음 그들을 포로로 잡아 에돔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았던 전쟁을 반영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가자 성벽에 불을 보내리라 하신지라 그것이 그녀의 요새를 삼킬 것이다. 내가 아스돗에서 그 주민을 끊고 아스글론에서 홀 잡은 자를 끊으리니

내가 손을 돌려 에그론을 쳐서 블레셋 사람의 이 모든 성읍을 말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남은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주님께서 이 일에 대해 왕과 지도자들, 장군들과 지휘관들에게만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국가 자체가 그들이 저지른 잔혹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물으십니다.

5절에 다메섹에 대한 심판을 말하니 아람 사람들이 본래 있던 곳 길로 사로잡혀 갈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 번째 심판 말씀인 9절을 보면 두로의 세 가지 죄에 대하여 내가 그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온 백성을 에돔에 붙였음이니라. 그들은 에돔 사람들에게 포로를 주었고, 또 아마도 이스라엘이나 유다와의 갈등을 이야기했을 것이며, 형제애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많은 예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 12절, 열왕기상 16장을 보면 두로가 이스라엘 백성과 일련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합은 이세벨의 아버지가 그곳의 왕이었기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동맹이 있었고, 조약이 있었고, 조약이 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러한 동맹을 맺었다는 사실을 불쾌하게 여기셨지만, 그들이 언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두로에게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오늘날 국가들이 조약과 약속을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간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한 나라가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나라에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그들의 주권 영토를 침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때, 그들이 약속한 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기대하십니다. . 1장 11절,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모든 긍휼을 버렸음이라 그 노가 항상 심하며 분을 영원히 품었느니라 따라서 여기에는 하나 이상의 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계속되어 온 에돔과 이스라엘 사이의 끊임없는 갈등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을 진노와 폭력으로 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형제라는 사실을 무시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쌍히 여김을 버리고 노를 냈기 때문에 그들의 분노를 억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돔 사람들에게 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판단에 관해 이런 종류의 고정관념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데만에 불을 보내리니 그것이 보스라의 산성들을 사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돔 사람들이 행한 일을 보시고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1장 13절에 암몬 자손이 언급한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한 일을 들어보세요. 이것은 끔찍한 설명이지만 고대 근동 전쟁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길르앗에 있는 임신한 여성들의 몸을 찢었고, 이 심판 연설의 첫 번째 시리즈에서 다메섹이 그 도시를 학대하고 고문했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길르앗에서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찢었습니다.

그들은 비전투원들을 죽였습니다. 무고한 여성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의 태 속에 있던 어린 자녀들도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경을 넓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토를 확장하고 번영을 누리기 위해 단순히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비인도적인 범죄 중 하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암몬 자손의 성 라바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리바람의 날에 폭풍이 그 성들을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들의 왕은 그와 그의 방백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유배될 것이라는 것을 앞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지도자들에게 특별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끔찍한 잔혹 행위, 국제 테러, 그리고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보시고 궁극적으로 모든 것의 심판자이심을 알면 위로가 됩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을 지구. 아브라함이 이르되 세상의 심판관이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는 그 시대에 일어났던 상황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역사와 종말론적으로 열국을 다루실 때 모든 일을 바로잡으실 것임을 알도록 격려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나라들을 심판하시며,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왕, 모든 지도자, 모든 권세 있는 자들, 모든 권력을 잡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 일에 책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2장 1절, 우리가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이르기 전에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석회를 삼았음이라.

여기서 우리는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 작은 국가들이 항상 영토, 국경, 이 땅이나 재산, 수로 등의 권리를 놓고 싸우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모압의 세 가지 죄 때문에 그는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석회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이들 국가 중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일이 아니라는 첫 번째 명확한 예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전혀 개입하지 않은 두 민족, 모압과 에돔을 보여주는 예이며, 그들이 적의 왕의 유해를 모욕하고 모욕한 폭력과 방식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형벌에 대한 책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들이 여호와께 어떤 형태로든 언약을 위반했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 생각할 때,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내가 저주하리니 그래서 이 나라들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은 여기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언약은 모세 언약 아래 있지 않은 이 나라들이 야훼를 대적하여 폐사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창세기 직후 온 인류와 맺은 노아 언약의 조건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수의 시간. 그 언약과 구약에서 언약이 세워지는 방식에서 언약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지만, 어떤 종류의 조건이나 규정도 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노아 언약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땅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노아 시대와 같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려면 땅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무는, 지금부터 인류는 홍수의 심판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애초에 그 홍수를 일으킨 폭력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 정부가 이곳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류가 폭력과 유혈 사태를 억제할 책임이 있다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마땅히 존중해야 할 것은 다메섹 사람들이 철썰매로 길르앗 주민들을 타작하고 또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팔았음과 같은 범죄를 행하였음이라 다른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 포로로 끌고 갔으며, 평화를 실천하기 위해 맺은 국제 조약과 계약을 어겼으며,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의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채찍질하여, 모압 사람들을 불태워 죽였느니라. 왕의 뼈를 석회로 만들어 창세기 9장 5절과 6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어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은 것은 단순한 역사 교훈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8세기에 팔레스타인 시리아 땅에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둘러싸고 있던 열국들에게만 적용되었던 언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이다.

이는 인류 모두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기초로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나라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최근 역사를 살펴보면 나치 독일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소련 제국이 폭력적이고 사악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련 제국을 심판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를 생각해보면, 낙태를 시행하고 매년 백만 명의 어린이를 살해하는 나라가 있다면, 궁극적으로 그러한 유형의 폭력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나라에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유다 때에 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날 역사 속의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구약성경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사야서에서는 소묵시록(Little Apocalypse)이라고 불리는 이사야서의 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최종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온 땅에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말은, 이것은 파괴적인 심판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메섹이나 에돔이나 모압이나 특정 국가에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심판 아래서 온 땅이 무너질 것이며, 땅은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비틀거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심판을 내리실까요? 이사야 24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그 주민 아래서 더러워졌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법령을 위반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키고 땅의 주민들은 죄악으로 인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땅의 주민들은 불타고 남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땅에 임할 심판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그리고 이사야는 이 심판이 땅에 내리는 이유는 그들이 영원한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언약에 관해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모세 율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어겼다고 말할 때, 우리는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 우리는 역사 전반에 걸쳐 위반되어 온 노아 언약의 조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혈액 측정기는 최대 수치에 도달할 것이며 하나님은 충분하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인과 살인의 사건을 반드시 기소하고 정의를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무죄한 희생자들의 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정의를 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고한 모든 이들의 피, 인간들이 서로에게 가한 폭력이 수백만 배로 늘어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살인이나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일년에 백만 건의 낙태가 일어나는 책임과 죄의식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형태의 폭력과 유혈 사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책임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그것이 특히, 이사야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것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다시 노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사야 26-21장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인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26-2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들의 죄악을 벌하실 것임이니라.

그리고 땅은 그 위에 흘린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전반에 걸쳐 자행된 모든 유혈, 모든 폭력, 모든 잔학 행위를 알고 계십니다. 땅은 그것을 드러낼 것이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것 때문에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12장에서 아모스는 노아의 언약 신학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이 행한 끔찍한 일과 유혈과 그들이 저지른 만행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서에서도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심판이 임할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신 후에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 왜냐하면 그들은 군사적 지배와 폭력, 침략, 유혈사태를 바탕으로 세워진 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 위에 성을 건설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보라, 사람들이 단지 불을 위해 수고하고 열방이 헛되이 피곤하게 되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바벨론은 피 위에 세워진 제국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보고를 받을 것이며, 그 제국은 무너질 것입니다. 나훔은 앗시리아인의 심판에 대해 이야기했고, 우리는 앗시리아가 어떻게 특히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민족으로 알려졌는지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다루는 비디오 중 하나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막대기에 찢린 희생자들과 절단된 시체들, 참수된 군인들과 고문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니느웨에 임할 때,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 흘리는 성읍이여, 거짓과 약탈이 가득하고 약탈이 끝이 없는

성읍이여. 그래서 그들은 유혈 사태를 저질렀고, 잔학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나훔이 묘사하는 것은 그들에게 똑같은 일을 하려는 적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에 그 범죄에 맞는 처벌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장과 2장에 나오는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초입니다. 아모스가 유다와 이스라엘의 심판에 관해 말할 내용을 살펴보면, 심판의 기초에는 다른 관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의 청중 중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여기서 말하는 것에 진심으로 동의합니다. 이 나라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부르짖고 폭풍처럼 천둥소리를 내며 하나님께 박수를 보냈을 것입니다.

일곱째 말씀을 기억하라 또 북왕국 백성이 이를 좋게 여겼을 것이니 이는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와 율법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법령. 그래서 이제 유다에 대한 심판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심판의 근거는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분의 율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열조가 따르던 자들의 거짓이 그들을 미혹하였나니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견고한 성을 사르리라.

좋아요, 정말 좋아요. 일곱 번째 메시지는 끝났으나 백성들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을 여덟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들으라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 그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일어나는 흥미로운 일은 그들이 행한 한 가지 죄의 목록을 주는 대신에, 또는 그들이 행한 두 가지 죄의 목록을 주는 대신, 이스라엘의 죄를 나열하는 긴 목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위하여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를 짓밟고 고난당하는 자의 길을 비껴가게 하며 남자와 그의 아버지가 한 소녀에게로 나아가서 모든 제단 곁에 누웠느니라 그들은 전당 잡은 옷을 입고 그들의 하나님의 전에서 벌금을 낸 자들의 포도주를 마신다. 가장 긴 죄 목록은 이스라엘에서 발견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심판에서

면제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방인들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아모스를 통하여 너희가 많이 맡은 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그분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으며 궁극적으로 책임을지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 1-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는 사자이심을 상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둥 같은 폭풍이십니다.

우리는 아모스서 전반에 걸쳐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은 노아 언약을 위반한 나라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모세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소선지서에 관한 강의 시리즈의 Dr. Gary Yates입니다. 이번 세션은 8회, 열방에 대한 심판입니다.